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동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희망 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 다채로운 행사 준비로 분주 -

절기상으로 가장 기후가 좋은 5월이 오면 가정의 달,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며 온 세상이 많은 행사와 놀이를 하며 떠들썩해진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들은 만연하는 개인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소가족 제도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세대간 대화의 단절 등으로 황폐하게 되어가고 있다.

가정을 처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소중하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는 5월을 맞이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후사로 주신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행사를 준비한다. 먼저 어린이 주일이 되는 5월5일(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 주관으로

- 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과 편지행사 : 중·고·대·청부 학생들이 미리 꽃과자와 낙하산을 준비하고 그 속에 축복의 편지를 써서 주일1부예배 후 5층에서 교회현관에 모인 어린이들에게 뿌려주는 행사
- ② "앗 장로님이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 장로님들이 달란트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인사하는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말과 함께 어린이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행사
- ③ 짜장면 파티

④ 1부 가족예배 어린이 찬양 등 전체행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각 교회학교에서도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자체적으로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두 번째 주일이 되는 5월 12일 어버이 주일에는
- ① 사랑과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 대청부에서 꽃을 준비하여 예배 후 나가시는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 드리는 행사
- ② 장년5부 효도잔치 : 초등부 어린이들이 어버이 주일에 장년5부와 함께 하는 행사
- ③ ONE & ONE 가족축제 : 어버이 주일에 유년부 어린이들이 편지를 써서 5월18일 주일 가족 예배 후에 가족 축제를 하며 부모와 자녀간에 가지는 친교 행사
- ④ 무지개 과일축제 : 유치부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과일로 무지개를 만들고 MESSAGE를 설명하고 함께 좌담회 개최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며 모든 성도들이 자식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더욱 소중히 하기를 기도한다.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5월10일(금) 오후 7시

교육위원회는 올해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토록 임명받은 교사들의 재교육과 영적 쇄신을 위한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를 5월10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대상은 각 교회학교의 부장 및 부감을 비롯한 전 교사들이다. 모든 교사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지나온 지난 4개월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회개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알찬 교육 및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유아부 교사 수련회

5월2일(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기들을 말씀으로 처음 양육하는 부서로 그 중요성이 교회학교 중 가장 큰 부서 중의 하나인 유아부(부장 이관규 장로)는 오는 5월2일(목) 교사수련회를 '로이드'에서 갖는다. 출발은 5월2일 10시 교회에서 한다.

중등부·사랑부 합동예배 드린다

5월5일(주) 10시30분 102호실에서

중등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02호 사랑부실에서 사랑부원들과 함께 합동예배를 드린다.

우리교회의 사랑부는 교회설립 다음해인 1992년에 설립된 부서로 장애인을 차별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등부 학생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남선교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시

교회내 30대 이상 모든 성인 남자들의 모임인 남선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있다.

우리교회의 남선교회는 여전도회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30~39(빌립) 40~44세(안드레) 45~49세(베드로) 50~54(바울) 55~59세(엘리아) 60~64세(모세) 65세 이상(아브라함)으로 구분되어 있다.

벌써 잊으셨나요?

복도를 깨끗이 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복도를 한번 보세요. 검게 그어진 신발자국이 많이 나오지요? 신발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자국을 지우기 위해 이만저만 고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모두 경쾌하게 시분시분 걸어봅시다. 올바른 걸음걸이는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덤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고생 덜 하지게 되고요. 지금 바로 실천해볼까요?

금주의 성경 말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개역개정판 출 20:17)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or his manservant or maidservant,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NIV Ex 20:17)

이시아서 강해

시온의 재건

(이사야 60장 10 - 14절)



이중운 목사

이방의 왕들이 한 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선민을 괴롭혔으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을 재건에 동참하고 선민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받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천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 역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교회는 진실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14절).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임하므로 인해서 교회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민족적으로 범죄 했을 때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 즉시 그 노를 거두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확실한 소망 중에서 회개할 뿐입니다(미 7:7-10).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는 이방 왕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방 사람들이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함을 주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온 한 조각과 딱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 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삼상 2:36).

이방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와 떡 조각을 청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차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계 3:9). 교회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눅 19:27).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파멸케 하시고 그들을 낫추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강국 로마가 멸망했고,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더니 마침내는 비참하게 멸망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북한은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종교를 반대할 자유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철저히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반드시 진멸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살후 1:8).
주님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2.교회 문은 아직 열려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11절).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의 안전은 보장되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으므로 성의 문은 주야로 열려두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안에 출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문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야로 열려 있는 성문 안으로 열방에서 왕들의 인솔하에 재물을 가져옵니다. '재물을 가져오며', 주님께 오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다 바친다 함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게 쓰임 받게 하는 것이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3.신앙을 배척하고 반교회적인 백성은 결국 망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12절).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강국 로마가 멸망했고,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더니 마침내는 비참하게 멸망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북한은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종교를 반대할 자유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철저히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반드시 진멸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

압하고 배척한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망할 백성을 돕는 손길 역시 망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하나님은 대적하고 배신한 개인, 가정,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4.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합쳐져 아름다워진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13절).

레바논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은사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같은 아름다운 은사들이 합쳐져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시간을 따라 혹은 물질을 따라 바치므로 마침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내 거룩한 곳'은 교회를 말하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을 들 곳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대상 28:2, 시 99:5, 132:7).

5.교회의 원수들이 마침내 교회를 인정한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14절).

교만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10절에 이어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강조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게 될 꿈을 두 번씩이나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거룩한 자가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알아주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요람이고 산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날 영광을 받게 될 터이니 이 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로잔 세계 복음화운동 (Lausanne Movement for Evangelization)

오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아시아 로잔 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교계지도자 100여명과 강사 2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서울교회에 벌써부터 국내, 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례자는 로잔 운동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잔 운동의 성격과 역사, 그리고 이 운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신학과 정신이 담긴 로잔 언약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였다. (편집자註)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리더십 개발과 흠여져 있는 복음주의 단체들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오늘날 개신교 선교의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선교 운동으로서 1974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 간 150여개국의 약 2,700명의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스위스의 로잔(Lausanne)에서의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당시 TIME지가 이 대회를 "지금까지의 크리스찬의 모임 가운데, 아마도 가장 광범위한 집합으로써 보수적이고, 성서적이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활기를 보여준 모임이었다."고 비중 있게 다루면서 또한 이 대회를 계기로 복음주의자들이 대회 후에도 계속 모임을 가지며, 결국에는 하나의 생기 있는 국제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도하였듯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대회가 참석자들의 신학적 사고와 선교 활동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변화된 참석자들을 통해 세계에 흠여져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물론, 그 외 전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별개의 선교 활동을 하던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은 로잔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다. 로잔은 하나의 "운동"(movement)이며, 교회들의 연합회같이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것이 특징이다. 로잔은 어떤 조직적 통일이나 또는 결의 기관도 아니고, 단지 로잔 언약의 정신과 신학적 입장에서 세계 복음화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후 로잔 운동은 1974년 대회를 계기로 계속적인 협력 기구요, 세계 복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설 기구로서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를 조직, 로잔 대회의 신학적 입장과 정신에 따라 세계 선교의 사명 수행을 촉진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이런 후속 조치는 로잔 대회에 모였던 참석자들의 열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초대 위원 50여 명은 각 지역별로 투표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2년에 한번씩 모여 세계 복음화에 대한 격려와 지도를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 위원회 내에 신학 연구 위원회, 선교 전략 연구 위원회, 홍보 위원회 및 기도 위원회 등을 두고 세계 복음화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국제 협의회를 주최하며, 또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세계 복음화 촉진에 공헌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각 대륙에는 북미 로잔 위원회, 아시아 로잔 위원회, 유럽 로잔 위원회 등 지역 로잔 위원회가 있어, 로잔 운동의 확산 내지 지역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로잔은 소속 단체에 구애됨이 없이 로잔 언약의 정신과 신학에 동조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임 수 있기에, 성공회로부터 대교파 교회는 물론 군소 교단 하나님의 성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임 수 있는 중심점의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주의 운동의 활약과 협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잔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엘허우스는, 로잔 대회에서는 선교 운동의 선배들의 신학적 입장과 계속성을 지니면서 신학적 기반들을 정리하는 데 그 성숙함을 보인 점이 로잔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1910년에 시작한 국제 선교협의회(IMC)운동 같은 것은, 선교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 운동을 뒷받침하고 보호할 분명한 신학적 기초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로잔에 모인 복음주의자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 운동에 기초가 되는 신학을 정리할 것을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이며 이 로잔 언약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교리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교리에 이르기까지 15개항으로 광범위하게 신학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신학은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신학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되, 세계 복음화라는 관심과 오늘의 선교라는 문맥(context)에서 다루어졌으며 로잔 운동의 신학적 기초와 복음주의자들의 협력의 기준과 공통 분모(common ground)가 되어 왔다.

로잔 언약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여러 복음주의 교회에서 뿐 아니라 기독교,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연구되어 왔다. 현재의 복음주의의 신학적 기초를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언약(covenant)이라고 표현했듯이, 이는 하나의 신학 선언문과는 달리,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이행치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주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헌신을 언약하는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로잔위원회는 이 로잔언약에 나타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현대 선교에 연관된 중요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세계복음화를 돕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단국대 교정을 지나 박정선 집사의 연구실로 들어가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잠 3:27)라는 말씀이 써있는 액자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

강원도 원주, 간현 마을에서 태어난 박정선 집사. 그는 자신의 고향을 강촌이라고 표현한다. 요즘에는 3, 4세부터 예능교육을 시작한다는데 박정선 집사는 중학생이 돼서야 피아노를 처음 보았다. 그런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된 것은 마을의 소리꾼이었던 아버지의 음악적 기질을 이어받은 터이리라.

지난 달 그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밤을 낮 삼아 작품을 쓰며 무리했던 지난 십 수년의 날들이 그의 심장을 조금씩 조였던 것이다. 응급실 문 앞에서 만난 심장전문의는 그를 곧바로 수술실로 데려갔다. 1분 1초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병상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눈부신 조명과 갈채가 그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었는가. 그래서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이 세상을 헛되다고 하였던가. 퇴원 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시며 감사드린다"는 이종운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세계 울렸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만인가, 신앙적 회한이 밀려오는 시간이었다.

바로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하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달리 교육열이 강하시고 강인하셨던 어머니는 가시는 그 날까지도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으시려고 아침

교우기업 탐방

나의 나뉜 것은....

박정선 집사(11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에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시고는 잠을 주무시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다. 어머니 한창순 권사와 아버지 박기호 집사는 고향집 사랑방에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간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리고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거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교회의 새벽종을 치시며 중집사로 하나님을 섬기셨다. 동네에서는 예수를 믿는 집이라 자녀들이 모두 잘 되었다고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박정선 집사는 1972년 당시 초등학교 교사인 김남순 권사와 결혼하여 뒤늦게 사랑하는 딸 선영이를 낳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선영이, 그는 선영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또 음악인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그의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교회에서는 찬양대를 섬기고 학교 학급에서는 종교부장을 맡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성경과 찬송가를 찾는 대견한 딸, 병상에 누운 자신을 눈물 머금은 눈으로 바라보던 사랑하는 아내. 그는 이번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대 지휘를 한 박정선 집사는 자신을 통해 찬양으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작곡가로 만드셨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출간 될 개편 찬송가에 박정선 집사가 작곡한 찬양이 3곡 수록된다. 그는 이로서 자신을 향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찬송가는 그가 작곡한 그 어떤 곡보다 더 귀하다.

10년을 넘게 지휘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박정선 집사,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크나큰 은혜의 통로라고 말한다. 찬양을 지도하고 지휘하며 그는 겸손과 섬김의 덕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낀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온다. 그 날 그는 어머니에게 바쳤던 마지막 곡인 '월월이 청청(달아 달아 밝은 달아)'들이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억할 것이다.

허 숙(편집부)

육사세례식 현장 스케치

지난 4월20일 우리교회는 육군사관학교 교회와 합동으로 진중세례식을 집례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생도는 60명, 입교가 4명이었다.

이종윤 목사는 세례식에 앞서 수세자들에게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에 붙잡힌바 된 사람을 부르시며,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사도가 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 날 세례를 받은 수세자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이며 장차 이 나라 군을 이끌어갈 인물들로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본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때 그를 바라보고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군대는 복음의 황금어장

이날 수세자들에게 세례식에 이어 성찬식도 함께 베풀어졌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 이들에게는 귀한 영적 체험이 되었을 것이며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도 함께 받았을 줄로 믿는다.

우리교회가 매년 주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과 자매 군부대의 진중세례식, 비전 2020 운동의 일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전 2020운동은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 게로 인도하는 복음화운동이다. 1996년부터 시작한 비전 2020운동은 벌써 7년째로 운동본부는 육사세례식 뿐만 아니라 3사단, 23사단 등 자매부대의 진중세례를 주관하며 많은 군인교회를 통하여 60만 군인을 믿음의 장병으로 만들기 위한 기독교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우리교회가 세례를 베풀 군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도 후원해야 한다. 또 연초에 자매부대 장병 중보기도 결연자 명단을 받은 이들도 그들이 군대를 무사히 제대하고 훌륭한 복음증거자

가 될 수 있도록 매일 한 번씩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우리 서울교회의 저력이며 전통이다. 오늘도 입술에 복음을 담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당신과 내가 되자.



사랑과 관심이 발전의 원동력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의 토요일 오후6시, 김세재 장로님(새가족부 부장)택에서 모이는 새가족부 3team의 초대를 받고 가는 길에 '누구나 집에서 쉬고 싶은 날씨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임 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택에 도착해 보니 이미 65명이 도착해서 가스펠 송을 부르며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많은 성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등 몇 곡을 더 부른 후 지혜영 전도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이운진 권사와 교사들이 준비한 만찬을 들었다.

OPEN MIND시간에 참석자들은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서울교회에 오게 된 동기 등을 이야기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를 오고 서울교회에 오셨다는 원용규 성도, 37세에 늦게 본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무당 굶거리를 하시는 친정 어머니를 뵈면서 무엇

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김순재 성도, 큰 시험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것 자체가 기적임을 알았다는 김정순 성도, 말씀은 없고 기도만을 강요하는 교회에 다니다가 작은 일에 흔들려서 말씀위주의 교회를 찾게 되어 서울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정수진 성도, 특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인 김경희 성도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으며 남편인 박중구씨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도 할 줄도 모르지만 새벽5시에 일어나면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극동방송을 듣는다고 하셨다. 만신과 구 등 우상을 섬기는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손성실 성도는 아기를 업고 20분을 걸어가서 드리는 구역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남편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특히 이번 모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총 70명 중 대청부 신입회원들이 20명이나 참석하였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청년부의 노찬홍 회장과 대학부의 최유현 자매가 함께 참석하여 이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입회원들과 기존회원들간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한 후 기존성도들과 융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 두 부서에서 새가족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새 가족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한 부서의 모임에 이렇게 많은 수가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 부서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한 달에 십 만원 넘도록 나오는 전화비를 감수하시면서 새가족들에게 전화하시는 집사님, 참석한

어린이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시는 장로님,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많은 수의 손님을 초대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기뻐하시는 권사님과 많은 교사들, 특히 모든 새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 기도제목 등 모두 외우고 계시는 지혜영 전도사님 등 모든 새가족부 교사가 하나되어 서로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보는 시간이었다.

동정

- 개업: 유성호 집사, 신종연 집사 가정(1교구)
 - 홍삼천하 개업 558-3260
- 이찬호 집사 최정순 집사 가정(3교구)
 - 만만나 별관 개업 568-3668
- 휠체어 기증: 새가족부 교사일동 2대, 김구진 집사 1대, 박정선 집사 1대, 이권호 성도 1대, 신용식 집사 2대 유명석 권사 1대 임상현 장로 1대 무명 10대

- ☎ 금주의 식사제공: 서상근 집사 김예환 권사 가정 (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 ☎ 21학기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영환경 집사 이인숙 권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사랑부 · 에바다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